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52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이재관 · 정진욱 · 박지원
문진석 · 김문수 · 박희승
정일영 · 위성곤 · 박선원
이병진 · 김윤덕 · 황명선
황정아 · 강준현 · 양부남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u>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 ----- ----- ----- -----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